



光州日報와 함께 행복한 주말을

Weather

광주·전남 휴일 날씨

16(土)	17(日)
 구름 많음 -4/3℃	 맑음 -3/6℃

News

- 목포·영암 방문한 DJ ②
- “아트피어안녕” ③
- KIA 미아자키 전훈 ⑩

Books

- 현대미술의 심장 뉴욕 ⑭

Entertainment



- ‘리얼리티’ 개그가 뜬다 ⑧
- 영화계 속편작업 속출 ⑨

Wellbeing

- 식품 탐구-멸치 ⑬



유망직업 전망 55년 역사와 전통

공유지 내로 명문대학교

남부대학교
www.namju.ac.kr

새로운 미래는 남부

전남과학대학
www.jnsc.ac.kr

‘사정 빅5’도 영남 독식

靑 수석·각료 이어 유례없는 지역 편중

이명박 정부의 초대 사정기관 수장들이 ‘100% 영남 인사’로 채워질 전망이다. 청와대 민정수석, 검찰총장, 경찰청장이 영남 인사로 정해진 데 이어 법무부 장관도 경북 안동 출신인 김경한 전 법무부 차관으로 사실상 확정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정원장마저 경남 남해출신인 김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유력한 상황이다. 지역 편중의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당초 법무부장관 후보였던 전남 출신의 김종민 전 검찰총장의 국정원장 기용설이 있지만 가능성은 낮다. 이명박 당선인이 ‘김성호 국정원장’ 카드로 일찌감치 마음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이다. 이에 따라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이명박 정부 초대 사정라인 ‘빅5’가 모두 영남인맥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각료 진용에 이어 사정라인까지의 영남편중 현상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는 평가다. 과거 군부정권과 김영삼 정부에서도 사정라인 등 권력기관에 영남 인사들을 기용했지만 각료 진용에서는 호남 인맥을 어느 정도 배려했기 때문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초대 사정 라인에 호남 인맥을 대거 등용했지만 청와대 수석과 내각 인선에선 지역 안배에 신경을 썼다. 또, 김대중 정권 이전 역대 정권의 사정 라인에 호남인맥이 거의 등용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이해되는 측면도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도 초대 사정라인을 짜면서 지역 안배를 고려했다. 영남 출신인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 송광수 검찰총장, 최기문 경찰청장 등을 임명했지만, 강원 정선과 제주 출신인 고영구 국정원장과 강금실 법무부 장관을 임명해 균형을 맞추려 애썼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이명박 정부 ‘사정빅5’ 출신 지역과 학교

기관명	이름	출신지	출신학교	주요 경력	임명 시기
국정원장	김성호	경남 남해	부산 브니엘고-고려대 법대	전 법무부 장관	임명 유력
법무부장관	김경한	경북 안동	경북고-서울대 법대	전 법무부 차관	임명 예정
청와대 민정수석	이종찬	경남 고성	삼천포고-고려대 법대	전 서울고검장	2008년 2월
검찰총장	임채진	경남 남해	부산고-서울대 법대	전 서울지검장	2007년 11월
경찰청장	어청수	경남 진양	진주고-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전 서울경찰청장	2008년 2월

조직개편 강경 대처 ‘파국 위기’

가칭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 대통령직 인수위가 정부조직 개편안을 놓고 정면으로 대치하고 있어 인수위측이 사실상의 시한으로 정한 주내 타결이 불투명해지면서 파국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양측은 지난 14일 김효석-안상수 원내대표, 유인태 국회 행정위원장-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 등 실무협상 라인을 통해 어느 정도 의견접근을 이뤘으나,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원칙적 입장을 고수해 최종 결재 단계에서 결국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 실무협상단은 해양수산부는 폐지하되 여성가족부는 존치하거나 복지부 산하에

설치될 양성평등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의 장관급 기구로 격상하는 절충안에 의견 접근을 이뤘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은 이명박 당선인은 여성부 존치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손 대표는 해양부를 고수해 타결은 일단 무산됐다.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와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짧은 회동에서도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뒤 주말인 16일 협상을 재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선인과 손 대표의 전향적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타결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강진 ‘동문매반가’의 현대판 酒母들



다산 정약용 선생이 200년전에 4년간 지냈던 강진을 주막집이 복원된 뒤 이 주막집에서 음식과 술을 파는 ‘주모’겸 문화유산 해설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을미, 이규점, 위동연, 고순덕, 정영삼씨(왼쪽부터).

“다산 선생처럼 모실게요”

정약용 유배지 복원 ... 문화유산 해설하며 음식 대접

“200년 전 이곳 주막 골방에 머물며 고달픈 유배생활을 했던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선생의 서글픈 심경을 느껴보세요.” 강진군은 지난 2006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0여년 전 역사의 현장을 그대로 복원해냈으며, 다산이 묵었던 주막집 골방은 1801년 당시의 이름이었던 ‘사의재(四宜齋)’로 되살아났다. 다산은 유배를 시작하면서 ‘생각과 응모, 언어, 행동 등 네 가지의 삶을 올바르게 하는 이가 거처하는 집’이란 뜻을 담아 이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현재 이곳에서 일하는 주모들은 모두 강진의 문화와 다산 선생에 대해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문화유산 해설사들이다. 이들이 손님상에 내놓는 음식은 콩나물 국밥, 장어탕, 해물칼국수, 파전, 도토리묵, 동동주, 녹차, 생강차, 유자차 등 남도의 전통음식들로, 그 맛이 일품이어서 인기가 높다. 특히 주모들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다산 선생과 강진에 대한 얘기들은 어떤 진수성찬과도 맞바꿀 수 없는 맛있는 반찬이다. /강진=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마을 사람들의 병대에 갈 곳 없는 처지에 놓였으나, 이 주막집 노파의 도움으로 뒷방에 거처했다고 전해진다. 강진군은 지난 2006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0여년 전 역사의 현장을 그대로 복원해냈으며, 다산이 묵었던 주막집 골방은 1801년 당시의 이름이었던 ‘사의재(四宜齋)’로 되살아났다. 다산은 유배를 시작하면서 ‘생각과 응모, 언어, 행동 등 네 가지의 삶을 올바르게 하는 이가 거처하는 집’이란 뜻을 담아 이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현재 이곳에서 일하는 주모들은 모두 강진의 문화와 다산 선생에 대해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문화유산 해설사들이다. 이들이 손님상에 내놓는 음식은 콩나물 국밥, 장어탕, 해물칼국수, 파전, 도토리묵, 동동주, 녹차, 생강차, 유자차 등 남도의 전통음식들로, 그 맛이 일품이어서 인기가 높다. 특히 주모들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다산 선생과 강진에 대한 얘기들은 어떤 진수성찬과도 맞바꿀 수 없는 맛있는 반찬이다. /강진=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다산의 흔적이 스민 곳에서, 감칠 맛 나는 남도의 음식을 저렴하게 접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이 주막은 문을 연지 3개월만에 월 매출 500만원을 올리는 명소가 됐다. “보람·사명감 커요” 주모 이규점(50)씨는 “처음엔 쉽게 생각하고 주모로 나섰는데,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음식을 만들고 청소를 하다 보면 너무 힘들어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면서도 “다산 선생과 강진을 알린다는 보람과 사명감 때문에 일을 계속하곤 한다”며 환하게 웃었다. 또 다른 주모인 위동연(47)씨도 “다산 선생하면 다산초당만 떠올리는 데 ‘사의재’도 빼놓을 수 없는 유산 중 한 곳”이라며 “200년전 다산 선생을 맞이했던 주모의 마음처럼, 오시는 모든 손님을 정성껏 모실테니 꼭 한번 방문해 달라”고 말했다. /강진=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미의 (The Beauty) advertisement featuring a woman's face and beauty products. The text includes '미의' and 'The Beauty'.